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 도입 여부 주목

김영록, 법무부에 건의...외국인 인력 제도 개선도 요청 한동훈 장관 "불법 입국 방지 전제로 적극 검토" 약속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과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농어업 분야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 장관을 만나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증 허가 때문에 해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도약하고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와 호남권 국제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무사증 입국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지만 무사증 제도가 도입되면 무안국제공항에 사증 없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의 호남권 접근성이 개선돼

해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조선업과 농어업 분야 외국인 인력 확보와 관련, "수주 물량 확대에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어가 수요를 반영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할 국가 차원의 외국인력 도입 전담기관 설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탈한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선박 수주 증가로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내국인 근로자의 조선업 기피와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조선업계들은 수주 물량을 제때 맞추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4월 법무부가 전문인력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조선 용접공과 선박 도장공의 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내국인의 20% 이내로 허용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2022-2023 전남방문의 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동남아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했으나 산업현장에선 관련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전남도는 조선업계의 실질적인 인력

난 해소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의 5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취업(E-9) 비자로 '5년 이상' 근로해야 특정 활동(E-7) 비자로 전환해주는 제도

를 '4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시기에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의 인력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 또한 현재 기초지자체가 주도해 해외 지자체와 협약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부터 관리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절근로자 이탈, 브로커 개입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도입으로 더욱 많은 아시아인이 전남의 매력을 직접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며 "산업·농어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총원으로 고용시장이 안정화되도록 법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인구소멸 대책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 없이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며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은 불법 입국을 확실히 방지하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방안은 이미 양양공항에서 시행 중이다.

이어 한 장관은 "외국인 정책은 국가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남도도 건의한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높인다

연말까지 100억 규모 신규 수주물량 확보 목표

전남도가 도내 식품 제조업체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업체들에 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유통전문업체 30곳에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힘든 식품 제조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현재 53% 수준인 도내 전체 식품 제조업체 평균 가동률을 앞으로 신규 수주 물량 확보를 통해 적극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 식품 제조업체에 올해 6월 이후부터 식품을 신규 위탁생산하고 있거나 현재 위탁생산 예정인 유통

업체가 포함된다. 위탁생산 업체에 각각 동판 제작비, 비닐 포장재 구입비 등 소요액 1천만원 중 800만원을 보조하기 때문에 업체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식품 수주업체 소재지 시·군 농업부서로 이달 말까지 하면 된다.

특히 전남도는 도내 업체에 위탁생산하는 유통업체에 다양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inmall.kr) 입점과 함께 도시상품질인증 참여 자격을 부여하며, 홈쇼핑 등을 활용한 유통 활성화 및 시제품 생산, 디자인 개발, 농식품 생산 시설 구축 등 사업도 지원한다.

전남도는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을 높

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60여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 신규 수주 물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우수 생산업체 발굴·홍보와 품목별 위·수탁 업체 순회 설명회 등을 이어왔다.

이 같은 결과, 지난 6월 15개 업체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 28억원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수주물량 신규 확보로 제조업체 가동률을 높여 현재 2조9천억원대인 전남의 식품산업 매출액을 3조원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의 가공 원료 생산 최적지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성공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도민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20개 우수 제안 시상

전남도는 10일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민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했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를 비롯해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도민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개선안이다. 다

만 단순 민원이나 진정,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등기나 전자우편(kimwoojin@korea.kr)을 통해 오는 9월 23일까지 전남도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으

로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접수된 제안을 심사해 오는 10월 최우수상 1개, 우수상 3개, 장려상 16개 등 총 20개 우수 과제를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자들에게 전남지사상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각 20만원, 장려상 각 10만원 씩의 상금을 수여한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2학기 학교 무상급식비 단가 7.4% 인상

소비자물가 상승 반영...질 좋은 급식 보장

광주시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학교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무상급식비 단가를 7.4% 인상하기로 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년 동월비 6월 생활물가지수를 반영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단가를 평균 2천521

원에서 2천707원으로 186원 인상한다.

급식비 인상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시교육청과 긴급 협의를 진행했으며 필요 예산 총 28억원(시 14억원·시교유청 14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학교무상급식비는 이번에 인상된 단가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500원과 국내산

장류 구입비 100원을 추가하면 초등학교는 2천971원, 중학교 3천449원, 고등학교 3천392원, 특수학교 3천752원이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급식비 인상은 급등하는 물가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속 모니터링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민주 광주시당 위원장, 현역의원-평의원 경선

정치개혁연대 최희용 후보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현역의원과 평의원 간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10일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로 최희용 전 참여자치의 공동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에서는 2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난 9일 단일화 통해 최 전 대표가 출마하게 됐다.

최 후보는 11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11시에 민주당 광주시당을 찾아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출범한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국민과 당원이 주도하는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평당원이 시장 위원장에 출마해 당선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시민과 당원이 주도하는 민주정치, 개혁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다"며 "민주화 세력의 중심이 돼 연대, 연합을 끌어내고 정권교체를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는 그동안 의원 간 합의를 거쳐 단일 후보를 선출해왔다. /박선강기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9일 마감

광주시는 10일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이 오는 19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까지 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을 마무리했다. 1차 지급 누락자, 기준일인 5월29일 이전 급여신청 후 신규 책정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2차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 등 1인 가구 30만원, 4인 가구 75만원을 지원한다. /박선강기자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